



보도 일시	2022. 7. 7.(목) 17:30	배포 일시	2022. 7. 7.(목) 16:00
담당 부서 <총괄>	개발금융국 개발사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40)
		담당자	사무관 윤영준 (yoonyj95@korea.kr)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성과공유 및 비전 선포식」 개최 결과

EDCF, 원조를 넘어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개발금융 수단으로 고도화

- 기획재정부는 22.7.7.(목) 14:00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성과공유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도국 발전과 대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87년 도입된 원조기금으로 기획재정부(시행주체)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운영

-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개발의 중심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민간 부문 지원 등 EDCF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으며,
- 동 선포식에는 개도국 정부 대사, 국제금융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기업 및 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 EDCF에 관심 있는 청년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 2022년 EDCF 성과공유 및 비전 선포식 개요 >

- **주최·주관:**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 **일시·장소:** '22.7.7.(목) 14:00~16:00, 서울 포시즌스 호텔(3층 그랜드볼룸)
- **프로그램:** 개회 → 기조발제 → 비전 선포식 → 패널토론(2개 세션)
- * (세션1) EDCF-개도국 협력 강화 방안 (세션2) 글로벌 개발금융 동향과 EDCF 역할
- **참석자:** EDCF 관련 국내외 인사 100여 명
 - (EDCF) 박일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권우석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 (외교단) EDCF 협력국 정부 대사(10명) 포함 개도국 외교관 30여명
 - (국제기구) 세계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엔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금융공사(IFC)
 - (국내) EDCF 사업 참여 기업, 개발협력기관, 학계, 청년 등

〈 개회사 등 주요 내용 〉

- 박일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에서, EDCF가 기후변화대응,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하게 분화하는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원조를 넘어 민간 부문까지 아우르는 개발금융 수단으로 진화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한편, 박 관리관은 1960-70년대 한국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계획의 실행재원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선진국과 국제금융기구의 개발차관이었다고 하면서 EDCF도 개도국에서 그와 같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1987년 2개 사업 23백만 불로 시작한 EDCF는 2021년말 기준 58개국 484개 사업에 206억 불의 누적 승인을 기록하며 지난 35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 권우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은 환영사에서 EDCF는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의 금융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개도국 개발사업에 최적화된 금융 패키지를 지원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EDCF가 국제개발협력의 지평을 넓혀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DCF 협력국 정부를 대표하여 축사에 나선 델와르 호세인(Delwar Hossain)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는 EDCF 차관이 개도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EDCF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교역·투자 등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기조 발제 : EDCF 성과공유 및 향후 방향성 〉

- 기재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기조발제에서 EDCF를 개도국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개발금융 수단으로 고도화시켜 나간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① 첫째, 기존 차관 위주로 운영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출자, 전대금융,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민간 부문 개발에 참여하겠음.

- ② 둘째, 건물 한 채, 도로 한 구간 등 미시적·단편적 사업 관점에서 벗어나 분야·주제별(sectoral/thematic)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지향할 것임.
- ③ 셋째, 개도국 그린·디지털 전환, 제조업 기반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산업고도화 협력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임. 이로써 개도국과 가치사슬을 공유하는 상호호혜적 공급망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전문가 좌담회 〉

□ 이날 행사에서는 비전선포식에 이어 각국 대사, 개도국 공무원,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 ① [1세션: EDCF 개도국 파트너십 강화] 토골라니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EDCF 지원으로 최근 완공된 탄자니아 최대규모 의료기관 무힘빌리 종합병원과 동아프리카 최대 해상교량 뉴샬린더 교량이 탄자니아 경제 사회 발전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소개하며
 -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EDCF 지원이 늘어날수록 개도국 경제 발전이 더 앞당겨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② [2세션: 개발금융 동향과 EDCF 역할] 유엔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개발재원은 원조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개발금융,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자원들이 혁신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또한, EDCF가 개도국 정부사업을 주로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민간재원을 끌어오는 마중물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

- 기획재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EDCF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개도국 정부를 비롯한 대내외 협력기관, 일반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EDCF 역할 강화를 위한 추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 기재부는 좌담회 등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EDCF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안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 1

「EDCF 성과공유 및 비전선포식」 상세 프로그램

◆ 일시·장소 : '22. 7. 7.(목) 14:00 ~ 16:00,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 행사장 : 3층 그랜드 볼룸

순 서	내 용	비 고
개회 (14:00~14:25)	• 개회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 환영사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 축사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기조 발제 (14:25~14:45)	• 현장의 목소리(인터뷰 영상)	해외사무소 직원, 개도국 공무원, 국내기업인, 청년
	• EDCF 성과 및 향후 방향성(PPT)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비전 선포식 (14:45~14:55)	• 기획재정부(EDCF 운영주체), 한국수출입은행(EDCF 수탁기관), 협력국 정부를 대표하는 5인이 비전 선포 버튼 행사에 참여	<선포식 참여: 5인> -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 수은 수석부행장 -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 주한 탄자니아 대사 - 주한 캄보디아 대사
패널토론 (15:00~16:00)	[세션1] EDCF-개도국 파트너십 강화 방안	좌장: 정혁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 (발제1) 기존 협력국 관점(탄자니아)	주한 탄자니아 대사
	- (발제2) 신규 협력국 관점(인도)	인도 재무부 부국장
	- (발제3) 對개도국 금융·지식 협력방안	수은 경험총괄본부장
	[세션2] 개발금융 동향과 EDCF의 역할	좌장: 박명호 교수 (한국외대 경제학부)
	- (발제1) 글로벌 개발금융 동향과 EDCF	정혁 서울대 교수
	- (발제2) 아태 지역 경제안보와 개발금융	유엔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이코노미스트
	- (발제3) EDCF-개발금융(DFI) 파트너십 방안	국제금융공사(IFC) 한국사무소 대표
폐회	• 폐회 후 기념촬영	

참고 2

EDCF 성과공유 및 비전 선포식 행사 사진



개 회 사

2022. 7. 7.(목)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박 일 영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입니다.

EDCF 협력국 정부를 대표하는 각국 대사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EDCF 성과공유 및 비전선포식에 함께해주셔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간의 성과 >

지난 35년간 EDCF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87년 2개 사업 2,300만불로 시작한 EDCF 차관은
2021년말 기준, 전 세계 58개국 484개 프로젝트에
총 206억불의 누적 승인을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인 개발사업 차관 위주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차관, 민자사업차관 등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도국에 위기대응차관¹⁾을
제공함으로써 긴급 소방수 역할도 하였습니다.

1) 2020년 9개국에 총 4.8억불 규모의 코로나19 긴급대응차관 지원

< EDCF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 >

이와 같은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EDCF의 진가는 널리 그리고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EDCF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소개하면서 오늘 비전 선포식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EDCF는 개도국 개발계획을 집행하는 공적재원입니다.

한국이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았던 1962년 당시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겨우 1~2억불 수준²⁾이었습니다.
개발재원으로 사용할 외화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차관을 받아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현대화하고, 제철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렇게 60~70년대 한국 경제는 차관에 힘입어 성장했습니다.
지금 EDCF 차관도 개도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EDCF는 상생하는 경제협력 파트너십입니다.

60년대 한국 정부는 대외 공공차관으로
디젤기관차를 수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70년대 중반 한국에도
기관차를 제작하는 회사가 설립되고
1979년 첫 한국형 디젤기관차가 출시됩니다.
약 40년이 지난 2018년, 한국과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전동차 256량을 공급하는
2.8억불 규모의 차관공여제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80량은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2) 1960년말 한국 외환보유액 1.6억불 ('21년말 4,631억불)

EDCF는 돈과 자재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험이 함께 갑니다.
머잖아 이집트에도 전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상생하는 경제협력 파트너십입니다.

셋째, EDCF는 대형 인프라를 완성하는 '금융'입니다.

인도네시아 카리안 댐과 세르퐁 정수장 건설
그리고 이 두 시설을 잇는 도수로 연결사업은
자카르타 인근 40만여 명의 식수난을 해소할
복합 물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총사업비 8억불이 넘는 이 초대형 사업은
당초 자금 부족, 높은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여의치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댐 건설에 초저리 EDCF 차관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사업 구간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가능케 하는 것이
EDCF '금융'의 역할입니다.

다른 공여국 양허자금에 비해 EDCF 규모가 크지 않지만,
EDCF에는 개발에 성공한 한국경제의 경험이 녹아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은 성공사례를 다시 복제해내려는
강력한 동력이 내재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EDCF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도전과 과제 >

지난 35년간 EDCF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개발은 '일등'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完走)'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메달을 딸 수는 없어도, 결승점을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EDCF 협력국들이 완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DCF가 결에서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코스는 녹록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맞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위협적입니다.
기후변화 역시 개발의 새로운 제약조건입니다.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공적개발원조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 EDCF가 앞장서겠습니다.

<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 >

먼저, 차관 위주로 운영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출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해
민간 부문 개발에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개별사업 중심의 미시적 원조 관점에서 벗어나
개도국 내 섹터·테마별 개발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범위와 규모를 획기적으로 대형화하겠습니다.
셋째, 그린·디지털 전환과 제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고도화 협력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개도국 발전을 실질적으로 전인하는
종합적 개발금융 솔루션으로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 맺음 말씀 >

이러한 EDCF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제신 모든 분이 하나 된 마음으로
EDCF의 미래를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DCF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